

목 차

I 선행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영시 작품의 교육적 효용성	4
4. 한국어 시 쓰기의 교육적 효용성	6

II 연구 결과

1. 영시 작품 선정 기준 정하기	8
2. 영시의 주제 중심(theme-based)에 따른 목록	11
2.1. 사랑, 그 감미로움에 녹아들다	
2.2. 나의 가족, 서로 사랑하고 미워한다.	
2.3 고통의 극복, 인생은 원래 고통의 과정이다	
2.4. 죽음과 나이듦, 결국 인간은 죽는다	
2.5. 자연과 인생, 그곳에서 치유를 받다	
2.6.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2.7. 인간 소외, 인간은 원래 각각의 섬이다	
2.8. 동물과 식물,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다	
2.9. 여행, 이국적 분위기에 취하다	
2.10. 다양한 인생 에피소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다	
3. 교양교육으로서 영시 읽기와 시쓰기 교수방법 ~~~~~	15
3.1 음성자료를 활용하여 영시 읽기 및 듣기	
3.2 영시 관련 정보 발표하기/강의하기	
3.3 영시 빈칸 채워 넣기	
3.4 영시 번역하기	

3.5 시 쓰기

3.6. 시화, 동영상, 사진, 캘리그래피 등 굿즈 만들기

3.7 수업 내(In-Class) 저널 쓰기

4. 주차별 강의 모형

가. 윌리엄 워즈워스의 “My Heart Leaps Up” 21

나. 윌리엄 워즈워스의 “I Wandered Lonely as a Cloud”....21

V. 결론 62

VI. 참고문헌 6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요한 쟁점들이 변화되어 왔다. 대학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의해 학생들을 위한 교양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지적 탐구에 대한 욕구 충족과 함께, 의미 있는 교양교육의 개발과 그 실천의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는 학생 개인의 역량을 위하여 지식 소양과 소통, 통찰, 자기 주도, 실질적 직무 능력, 리더십 함양을 중점으로 두며, 학생들의 공통적 경험을 위하여 학제 간 융합, 비판적 사고와 표현 능력, 자기성찰과 전인적 공감 능력,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획득 등의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개인의 역량과 공통 경험을 위한 인문학적, 실용적, 융합적인 교양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어질수록 학생들은 더욱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름다운 영시 읽기와 시 쓰기(Reading English Poems and Writing Korean Poems)를 중심으로, 첫째, 학습자들에게 가치 있는 문학 작품 즉 영시를 소개하여 자아의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둘째, 영어로 된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 언어를 학습하게끔 돕는 것이다. 셋째,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상상력과 경험과 가치관을 녹여내 자신을 위한 시를 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표현 능력, 자기성찰과 전인적 공감 능력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영시는 다른 어떤 장르의 문학 자료보다도 짧고 간결하여 한 시간 이하로도 주제를 파악하여 인문학적 접근 및 의사소통의 실용적 접근, 더 나아가 글쓰기와 같은 학습자들의 주도적인 창작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통 소설, 드라마 등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한 학기에 한 두 권의 텍스트가 수업 도구로 사용되거나, 혹은 일부 발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 편의 시는 그 전체로써 주제가 완결된 텍스트이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Maley & Duff 4) 다양한 주제와 소재, 그리고 의미를 지닌 상황들이 시 속에 나타난다. 등장인물, 화자, 정서, 이미지 등의 다양한 상황 및 다양한 에피소드와 마주하는 학습자들은 깊은 감정이입이나 정서적 교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즉 문학, 문화, 언어와 관련된 인문학적 지식 습득은 물론 단순한 영시 감상과 감동을 넘어서, 이 영시를 참고로 하여 해체하여 재해석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시를 써 봄으로써 창작의 기쁨을 제공할 수 있다.

3. 영시 작품의 교육적 효용성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 텍스트 중 시 장르가 문학, 문화, 언어를 가르치는 텍스트로서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양교육과정에서 영시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도외시되는 이유에는 “영시는 어렵다”라는 부정적 평가 때문이다. 이러한 시에 대한 편견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어학습에 대한 Topping의 의견에서 기인된다. Topping은 “우리가 훌륭한 문학이라고 정의하는 언어는 너무 복잡하고 비일상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문학은 읽기 능력에 도움이 될 뿐, 듣기, 말하기, 쓰기 기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표준 구문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문학 교육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문학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선 매우 우수한 어학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opping, 95-99)

문학작품의 교육자료 활용에 있어서 부정적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1972년의 Povey(1972)의 연구를 위시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문학은 언어자료를 제공하고 어휘의 용법과 통사 구조 및 문제점 등을 통하여 언어 지식을 확장시켜 주고, 목표 문화와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 주는 교육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훌륭한 문학 작품을 통해 자아의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작가의 표현법과 사상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창조력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시 텍스트는 인문학적 접근의 학습 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설과 드라마, 수필 장르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방법들과 함께 꾸준히 연구와 실천이 되고 있다. 이는 토핑의 주장과는 달리 문학작품이 인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매우 유의미한 교육 자료이라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보여주는 실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시 또한 언어학습의 도구로서 가치와 효용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문학 장르보다 영시가 언어학습의 도구로서의 역할과 그 효용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가 가진 언어의 함축성, 라임과 같은 정형화된 규칙성으로 인하여, 일상 언어와는 다르고 사용 빈도도 약하고 어려운 언어라고 오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시를 문학 작품(a work)으로서, 텍스트(a text)로서, 언어 자료 (a language material)로서의 의미(Carter와 Walker, 5)와 더불어, 다른 문학 장르나 비문학 자료가 영어 학습이나 습득과 관련해서 제공하기 어려운 것들을 영시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위치에서 가치 있고 수준에 맞는 시를 텍스트로서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연구된 논문들의 주제들은 영시의 효용성 및 영시를 활용한 교수법에 주로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반면 현장에서 텍스트로 다뤄야 하는 영시 작품의 선별에 대한 깊은 고민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영시가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작품 선별 및 교수방법에 대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문학과 글쓰기라는 '진부한 수업'이라는 편견을 넘어 인문학적 목표와 동시에 학생들의 실용적 언어 학습 능력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시 텍스트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을 훈련하는 총체적 언어교육 자료로 효용이 높고,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에서 탁월하고, 시 속에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 삶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참된 언어학습의 자료 (남다운, 113)가 됨을

충분히 밝힌 선행 연구에서처럼 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인문학적, 실용적, 통합적 학습의 도구로서 장점을 갖는다.

1.1. 시는 짧고 간결하여 한 시간 이하로도 주제를 파악하여 인문학적 접근 및 의사소통의 실용적 접근 모두 가능하게 해준다.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문학 장르들이 플롯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는 작가가 표명하고자 하는 주제가 한 편의 시 속에 집약적으로 표현된 장르이기에, 짧은 텍스트 속에서도 학습자들은 충분히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짧은 텍스트 안에 완결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 시간의 수업 속에서 여러 편의 영시 읽기가 가능하다는 이점 또한 있다.

1.2. 인문학적 자료로서 시는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세계를 그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가치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를 찾고 번역하고, 글쓰기, 발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는 영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 고통과 극복, 자연에 대한 치유 등 우리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감성적 반응이 기억과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Stevick, 132-137 and Hansen, 211-225)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교육 자료로서의 시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1.3. 시의 언어는 리듬의 언어로 일상 언어가 줄 수 없는 강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운율과 리듬을 가진 영시를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음(articulation)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영미시를 크게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명료한 발음, 강약, 리듬, 말의 속도와 흐름을 조절하고 유연하게 하는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Maley & Duff 12). 또한 이것은 영시를 외우기 쉽고 오래 기억되게 해줌으로써 의사소통 시 필요한 상황에 기억한 내용을 끄집어내어 실용적으로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다.

1.4. 영시의 '일탈적 어법의 사용'으로 오류의 용인(tolerance of error)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탈적 어법이란 비규범적 또는 비정형화된 문장의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에서는 만날 수 없는 비문법적 언어의 사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이 학습자들에게는 시의 언어가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규범적, 비형식화 된 언어들을 만남으로써 학습자들에게는 창조적 언어 사용 및 재생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논리적 문장을 논리화하고, 비정형화된 문장을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시 속의 일탈적 어법의 언어들은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에 대한 흥미 및 언어의 창조적 능력을 본인이 직접 느끼고 개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송무, 38)

또한 말레이(Maley)와 더프(Duff)는 시 텍스트의 장점을 언어 조작의 용이성(hands on)으로 설명했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는 “그 언어를 가지고 놀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끌어당기고, 신축성을 실험하고, 한계를 탐색하고 시험하는 기회의 제공”(Maley & Duff, 9)이라고 말하였다. 시 텍스트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뛰어난 수업도구이다. 즉 외국어로서 영어를 읽고 해석하고 시를 써 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어 새롭게 배열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언어에 대한 관심과 언어 사용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언어란 완벽한 형태가 아닌 불완전한 형태로도 사용 가능함을 느끼면서 완벽함에 대한 언어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영시를 활용한 한국어 시 쓰기의 교육적 효용성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지닌 채 수업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시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어 글쓰기를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의 인문학적, 실용적, 융합적 교양 교육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질 수 있다. 영시는 학습자의 언어능력, 문화이해, 개인적 성장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시 쓰기를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은 영시 감상과 감동을 넘어, 그 영시를 해체 및 재해석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학습자 자신의 시를 써 봄으로써 창작의 기쁨과 함께 인문학적 지식 탐구 및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를 쓰기 전에 우선, 영어로 된 시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학습과 한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접근 또한 가능한데, 영-한 번역을 하면서 단어 선택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언어 세상을 만나고 이 과정 속에서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이란 또 다른 형태의 창작 과정으로 영시를 모티브로 하여 시를 쓰는 것은 고도의 창작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감상을 하는 수동적인 독자의 자세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작가로의 위치 전환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활동이다.

시 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영시를 한글로 번역한 후, 번역한 형태를 그대로 두고 시 속의 명사, 동사, 형용사 일부를 바꾸는 활동이다. 그리고 더 확장시켜 구(phrase)나 문장 전체를 바꾸어서 자신이 원하는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이다(Maley & Moulding 7-14). 시 쓰기 과정은 허구의 세계를 그려 나가는 소설과 달리, 자신의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쓰기로 진행되는 것이다.

원 작품의 주제나 소재, 에피소드를 그대로 둔 채, 단어, 구, 문장만을 바꾸는 시 쓰기 과정을 이미 실행했다면, 언어적 의미의 생성과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언어, 이미지, 표현, 구성이 어떻게 선택되고 배열되는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시 창작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시간을 가진다. 이 경우 글쓰기를 통한 영어 및 한국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언어 사용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시를 활용하여 각자의 새로운 형태의 시를 써 봄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의 주체적 존재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통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III. 연구 결과

1. 영시 작품 선정 기준 정하기

현재 교육 자료로 제공되는 시들의 대부분은 문학의 정전이라 불리는 노튼 앤솔로지의 대표 작가들이 쓴 시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영시 읽기와 시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선 영문학사적으로 위대한 작가의 작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적 접근에서의 영시 텍스트는 시대별 중요 작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주제 중심(theme-based)으로 나누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 선별을 위해 필요하다.

영시 작품을 주제 중심(theme-based) 접근 방법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 이전에 교육 자료로서 피해야 하는 작품 내용을 먼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명 작품 위주로 교육현장에서 영시를 다루게 되면 실제 영시 전공자조차도 영시를 읽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는 지극히 작가 개인적인 사상과 느낌 중심의 내용으로 한 작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수자나 학습자들이 주제나 소재 등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또한 상징, 은유, 상징 등의 비유적 표현들이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시를 만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작품을 만나면 작품 이해는 물론 해석하는 것조차 어렵다.

피해야 하는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의 예로는 T. S. Eliot의 『황무지』와 같은 시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모더니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어서 문학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시지만, 시가 길고 난해하며 상징과 은유가 많아 전공자조차도 주석 없이는 읽기가 어렵다. 엘리엇이 1921년에 자신의 에세이 속에 “이 시대의 시는 어려워야 한다.”라고 표명했듯이, 20세기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의 대부분이 난해하다. 또한 1차와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그 시대적 암울한 상황이 시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어서 소재나 주제 면에 있어서 어둡고 우울한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세계를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황무지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무겁고 어두운 주제의 시를 교양과정에서 다루기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듯이 교육 자료를 위한 영시 텍스트 선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별하기 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치고 경험한 내용들을 녹여 내어 인간의 근원 문제를 다루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들을 선별하는 것이 교육 자료 구성에 중요하다. 즉 인류의 전체의 보편성(Universality)이 돋보이는 작품 선별(Maley & Duff)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제의 시를 읽어내면서 학습자들은 공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어 학습의 동기를 제공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게 된다. 다음은 영시 작품을 영시 텍스트의 선별 기준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다.

1.1. 수업 자료로서의 영시 선별에 있어서 정해진 학습 시간 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의 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시 중에는 매우 짧은 시도 있지만 서사시와 같이

긴 시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 선별에 있어서 적당한 길이로 주제를 압축한 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14행으로 구성된 소네트가 매우 좋은 수업 자료로 추천되어질 수 있다. 14행의 소네트는 시 한 편으로도 주제가 그 속에 잘 표현된 완결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2시간으로 구성된 교양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첫 번째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영시를 읽고 감상하고 번역하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국어로 간단하게 단어를 바꾸어서 시를 쓰거나 더 나아가 창의적인 시 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1.2. 라임과 미터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정형시보다는 리듬감이 살아있는 자유시를 시 텍스트로 정한다. 형식에 정교하게 맞춰진 정형시는 미터나 라임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한 행에서 단어의 도치나 생략이 많다. 이러한 시들은 영시 전공자들도 구문의 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3. 고어 및 어려운 단어가 많은 것보다 쉬운 현대영어로 쓰여져 있고, 문법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작품 번역이 용이한 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징, 은유, 상징 등의 비유적 표현들이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 보단 일상 언어로 표현되어진 시를 찾는 것이 좋다.

1.4. 인문학적 접근이 가능한 작품을 선정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배경과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시 속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잘 선정한다면 실용적 소통을 위한 영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접근도 가능하게 해준다.

1.5. 학습자들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어야 한다. 기존의 학습 내용은 대부분 교수자 중심으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들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하는 영시는 학습자들이 즐길 수 있는 시어야 한다. 반전의 전개, 시간적 흐름이 있는 전개,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사건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자극하면서 학습의 강한 동기를 만들어 낸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을 확대시키고 그들의 감정과 소통을 실용적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6. 영시 텍스트는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셰익스피어는 물론 2020년대에 활동하는 작가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로 된 모든 시 혹은 영어로 번역된 다른 외국 작가의 작품 또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중음악의 가사까지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의 작품처럼 팝음악의 가사 또한 이미 대중문화를 넘어서 인문학적 가치가 충분히 지니고 있는 작품 또한 많기 때문이다.

1.7. 학습자들의 언어(영어 및 한국어) 수준, 관심사, 정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에 맞는 시 선정이 중요하다. 특히 시 주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이 경험한 세계와 시 속의 인문학적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시들을 선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흥미와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학습에 스며들 수 있다.

2. 영시의 주제 중심(theme-based)에 따른 목록

영시가 학습자들에게 언어, 표현, 내용에 있어 적합하면서 깊이 있는 인문학적 접근을 하게 하는 교육 자료로서의 작품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영시 작품을 주제 중심(theme-based) 접근 방법에 따라 주제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영어의 읽기, 듣고, 말하기, 쓰기 등의 기능별 접근과 구별되며, 또한 작가별, 문학사조별, 시대별 접근을 하는 영문학 전공자 중심의 영시 교육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보통 영문학 전공자를 위한 영시 교육은 시의 요소들, 작가의 생애 및 사상, 시대적 배경 등을 선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영시는 문학적 배경 지식보다는 오롯이 텍스트에 집중하여 영시 속의 언어적 내용이 우선시되어 작품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시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인문학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실용적 영어교육과 함께 인문학적 접근에 부합되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들, 즉 사랑, 가족 이야기, 삶의 역경에 대한 극복, 죽음의 극복, 자연의 치유 능력, 카르페 디엠, 인간 소외, 동식물 관련 시, 인생의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영시 작품을 주제 중심(theme-based) 접근 방법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층위의 주제를 담고 있기에. 한 작품을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 편협적인 문학 작품의 분류 방법이다. 하지만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영시들을 편의상 주된 주제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2.1. 사랑, 그 감미로움에 녹아들다2.2. 나의 가족, 서로 사랑하고 미워한다.2.3 고통의 극복, 인생은 원래 고통의 과정이다2.4. 죽음과 나이듦, 결국 인간은 죽는다2.5. 자연과 인생, 그곳에서 치유를 받다2.6.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2.7. 인간 소외, 인간은 원래 섬이다2.8. 동물과 식물,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다2.9. 여행, 이국적 분위기에 취하다2.10. 다양한 인생 에피소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다 |
|--|

3. 일반 수업 절차

‘아름다운 영시 읽기와 시 쓰기’가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자리 잡기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는 잘 조직화된 방법으로, “영시 읽기/ 한국어 번역/ 작품의 느낌 공유하기/ 한국어로 시 쓰기”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방법론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매 시간 수업 목표와 이것에 부합되는 교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각의 활동 단계는 더 세분화된 단계로 촘촘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학적 접근과 언어적 접근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 아래 영시 읽기와 번역을 거친 후, 한국어 시 쓰기가 균형 잡힌 비중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 차이를 고려하여 학습자 개인 활동,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동, 모둠 활동,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활동으로 구성하며 인문학적인 창의성, 상상력 활동 등이 서로 긴밀하게 이뤄지도록 구성한다. 그러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아, 정서, 가치관, 창의성, 상상력, 분석력, 비평적 인식이 글쓰기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1 음성 자료를 활용하여 영시 읽기 및 듣기

영시는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두운, 각운, 리듬 등의 음악성을 가진 언어이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학습자는 시를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발음과 리듬 억양 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리듬감 있는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유튜브 속의 원어민의 시 낭독, 애니메이션, 시를 가사로 한 노래 등 영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웹사이트 속에 탑재되어 있다. 이것들을 이용하여 세련된 원어민의 발음과 학습자의 낭송과 비교하여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학습 과정에서는 스마트 폰으로 학습자들이 배운 시를 녹음하여 자신의 영어 발음과 능숙한 원어민의 발음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학습의 효과는 더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시의 음악성을 이용하여 시 낭송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저항감 없이 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어떤 텍스트 보다 시를 읽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이 강화된다. (Maley & Duff, 95-111)

3.2 영시 관련 정보 발표하기/강의하기

영시 작품과 관련된 작품의 시대적 배경, 문학 사조, 작가, 비평, 인터뷰, 신문기사, 강연 등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 교수자가 직접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고 혹은 학습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여 발표하게끔 한다. 학습자들은 미리 정리한 ppt로 요약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관심 있는 인문학적 내용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3 영시 빈칸 채워 넣기

시행에서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괄호를 만들어 빈칸을 만든다. 동시에 유튜브에 나오는

원어민의 낭독을 들으면서 그 빈칸을 채운다. 어려운 단어인 경우 선택지를 사용해도 된다. 또한 시 속의 비유적 표현인 상징, 은유, 직유, 의인화, 이미지, 각운 중심으로 빈칸을 만들어도 되고, 또는 어휘 (형용사, 동사, 부사 등)를 비워 놓고 문맥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우거나 어려운 경우 보기에서 고르게 하는 활동을 한다. 경우에 따라 문장을 이루는 행을 비워 놓고 그 행에 들어갈 단어를 섞어 놓은 채로 제시하고 문장 전체를 완성하거나 보기에서 고르게 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3.4 영시 번역하기

번역은 한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바꾸면서 행해지는 언어적 창조 행위이다. 영어로 된 시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동시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한 번역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단어 선택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언어 세상을 만나고, 또한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활동은 영시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쉬운 영미시를 번역할 경우에는 모두 별로 순서를 정해 첫 번째 사람은 첫 행을, 두 번째 사람은 다음 행을, 그 다음은 그 다음 행을 읽고 번역하면서 마지막에는 함께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시 쓰기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교수자가 직접 해석하면서 번역을 진행해도 된다.

3.5 경험 공유하기 및 발표하기

시를 읽은 후 그 작품을 통해 떠오르는 사건이나 영감 혹은 다양한 경험들을 학습자들 간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 시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시 쓰기에 필요한 주제 및 소재, 심상 등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다른 종교, 문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3.6 시 쓰기 및 발표하기

영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끝난 후, 번역과 작품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 간의 공유 시간을 가진 후, 번역한 시를 원본으로 하여 다시 재구성하는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다. 창작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번역한 시를 모티브로 하여 자신의 시를 쓰는 과정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가장 간단한 시 쓰기는 번역된 시를 그대로 두고 명사, 동사, 형용사 등 단어 일부만을 바꾸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를 써보는 것이다. 비록 간단한 단어만 변형하지만 독자를 작가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통해 영시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이 경우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시 창작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문학적으로 의미 있고 즐거움을 누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삶을 연계한 시를 자유롭게 쓰도록 학습자들에게 독려하여 시적 자아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각을 깊이 할 수 있게 하여 창조적 작품이 진행되도록 격려한다.

3.7. 시화, 동영상, 사진, 캘리그래피 등 굿즈 만들기

영시 원본 혹은 자신이 쓴 시를 그림이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보거나, 마음에 드는 시 구절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는 하는 시간을 가진다. 영시와 관련된 사진, 그림 등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깊은 느낌을 주는 시구를 써보는 시간을 가진다. 학습자 입장에서 언어 이외의 시각적 자료를 통해 자신이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표현해 봄으로써 시 쓰기에서 깊게 다루어야 할 "잠재적 의미"를 찾고 논의할 수 있는 인문학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언어에 대한 세부적 내용파악도 중요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영시에 대한 "이해와 기쁨을 늘리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Greenwood, 89).

3.7 수업 내(In-Class) 저널 쓰기

수업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한 단락 분량의 짧은 저널 쓰기는 진행하면 좋다. 이는 수업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업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지시키고 수업의 긴장 유지와 흥미 유지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저널은 서로 교환해서 읽게 하고 잘된 것을 골라 발표하게 한 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코멘트를 얻게 할 수 있다.

4. 아름다운 영시 읽기와 한국어 시 쓰기 강의 실행모형

앞에서 영시 선정과 선정된 영시를 읽고, 번역하고, 한국어 시 쓰기의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번에는 선정된 영시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다룰 차례이다.

가.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 “My Heart Leaps Up”

(1) 영시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시 텍스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먼저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제목이나 시의 중요한 단어나 구절로부터 시의 주제를 예측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만약 시 속의 화자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문학작품을 다룰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인류를 위한 seer(선지자) 혹은 prophet(예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작가들의 이러한 가치관이 문학작품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을 위하여 삶 속의 보석 같은 가치를 작품 속에 그려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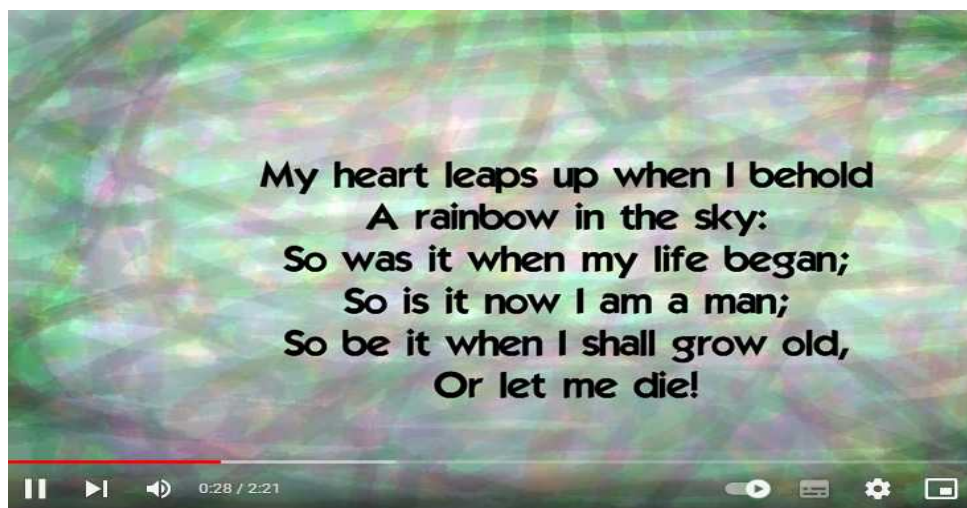
심지어 고통이나 죽음, 노화, 이별, 슬픔 속에서도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위안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란스런 인간들과의 관계보다는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19세기 영국 시인인 워즈워스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또한 구름처럼 홀로 거닐다가 우연히 호숫가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수선화 무리를 보고서 느낀 흥분된 감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집에 돌아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시금 떠오른 풍경으로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가진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2) 음성자료를 활용하여 듣고 영시 낭송하기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 낭송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필요시 스스로 찾아 들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의 낭독자들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영어의 인토네이션, 스트레스가 그대로 살아있어 언어적 리듬감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My Heart Leaps Up by William Wordsworth (music + lyrics)

(3) 필요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배경 제공

교수자는 시의 역사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제공한다. 시의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의 일생에 관하여 소개를 한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낭만주의 사조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낭만주의는 인습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개인의 개성과 감성, 상상력이 꽃을 피운다고 믿었다. 또한 인생의 중심을 개인으로 보았다. 지금은 “감성”, “공감”, “상상력”이 당연한 삶의 키워드로 작용하지만, 신고전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로의 변화는 과히 혁명적이었다.

낭만주의의 대표작가인 워즈워스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원형을 어린 아이에게서 찾았다. 아름다운 고향 마을에서 진리의 계시를 보았고, 인간의 본질은 어린이의 순수함이고 만물의 진리는 초자연이 아니라 바로 자연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름에서 이미 ‘보배로운 언어(worth words)’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작가는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항상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마다 암송한 시가 그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영시 본문 괄호 채워 넣기

영시의 원문에서 의미 있는 단어나 각운 자리에 괄호를 만들어, 학습자들이 유튜브에서 낭송되어 지는 시를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빈칸에 단어를 채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어려운 단어인 경우에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 또한 다양한 빠르기의 시 낭송 속에서 영어의 인토네이션, 스트레스가 그대로 살아있어 언어적 리듬감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 낭송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필요시 스스로 찾아 들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또한 의미 있다.

My heart ()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 Or let me ()!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 ()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 piety.
--

빈칸을 다 채운 후,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일탈된 어휘가 시 속에 있으면 좀 더 문법에 적합한 언어로 제시하고, 은유나 상징, 이미지와 같은 비유법이 있으면 시

속에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영시는 길이가 짧지만 그 속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의 언어적 특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 예를 들어 behold는 look at의 문예체임을, So do I 문장 구조, let me do 등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진로 관련하여 영어 공인 성적표(토익, 토플, 텡스 등)가 필요하다. 이러한 욕구가 강한 학습자들을 위해 영시의 빈칸 채우기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서 언어적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영어 실력 향상 더 시간을 할애를 하면 효과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영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교수자의 일방적인 해석 중심이 아닌 다양하게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번역을 유도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시가 고어로 쓰인 것이라도 그것을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한국어로 번역을 진행한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면 내 가슴이 뛴니다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지금 내가 성인이 되었어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그럴 겁니다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나의 나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매일매일이 그러하길

(6) 한국어 시 쓰기

원작을 모티브로 삼아 학습자들은 자신의 시를 써본다. 이 때 학생들의 언어적 능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구문, 문장도 바꾸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워즈워스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원형을 어린 아이에게서 찾았기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가슴 뛰는 대상이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대상물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유도한 후 시 쓰기를 진행하면 좋다. 영시를 한글로 번역한 후, 번역한 형태를 그대로 두고 시 속의 명사, 동사, 형용사 일부를 바꾸거나 혹은 의미구를 바꾸거나 나아가 문장 전체를 바꾸어서 자신이 원하는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이다(Maley & Moulding 7-14). 초벌 번역에서는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다면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표현해보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깊이 있게 사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①한 단어 바꾸기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중심)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면 내 가슴이 뛴니다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지금 내가 성인이 되었어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그럴 겁니다

인터넷의 게임을

할 때면 내 가슴이 뛴니다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지금 내가 성인이 되었어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단순한 단어나 구를 바꾸는 패러디 시 쓰기 과정을 넘어서, 언어, 이미지, 표현, 구성이 어떻게 선택되고 배열되는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시 창작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시 창작을 기대하기보다 글쓰기를 통한 영어 및 한국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러디 시를 쓴 이후, 학습자 각자의 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학습자와 경험의 공유 시간을 가진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 타인의 창의성, 경험, 가치관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 윌리엄 워즈워스의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1) 영시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시 텍스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먼저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제목이나 시의 중요한 단어나 구절로부터 시의 주제를 예측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만약 시 속의 화자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시인은 구름처럼 홀로 거닐다가 우연히 호숫가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수선화 무리를 보고서 느낀 흥분된 감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집에 돌아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시금 떠오른 풍경으로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가진다.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and gazed—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2) 음성자료를 활용하여 듣고 영시 낭송하기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 낭송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필요시 스스로 찾아 들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의 낭독자들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영어의 인토네이션, 스트레스가 그대로 살아있어 언어적 리듬감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Wandered Lonely as a Cloud by William Wordsworth - Visual Poetry

(3) 필요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배경 제공

교수자는 시의 역사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제공한다. 시의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의 일생에 관하여 소개를 한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낭만주의 사조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낭만주의는 인습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개인의 개성과 감성, 상상력이 꽃을 피운다고 믿었다. 또한 인생의 중심을 개인으로 보았다. 지금은 “감성”, “공감”, “상상력”이 당연한 삶의 키워드로 작용하지만, 신고전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로의 변화는 과히 혁명적이었다.

낭만주의의 대표작가인 워즈워스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원형을 어린 아이에게서 찾았다. 아름다운 고향 마을에서 진리의 계시를 보았고, 인간의 본질은 어린이의 순수함이고 만물의 진리는 초자연이 아니라 바로 자연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름에서 이미 ‘보배로운 언어(worth words)’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작가는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항상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마다 암송한 시가 그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영시 본문 괄호 채워 넣기

영시의 원문에서 의미 있는 단어나 각운 자리에 괄호를 만들어, 학습자들이 유튜브에서 낭송되어 지는 시를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빈칸에 단어를 채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어려운 단어인 경우에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 또한 다양한 빠르기의 시 낭송 속에서 영어의 인토네이션, 스트레스가 그대로 살아있어 언어적 리듬감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 낭송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필요시 스스로 찾아보게끔 격려한다.

I wandered lonely as a ()
 That ()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
 I gazed—and gazed—but little ()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 eye
 Which is the bliss of ();
 And then my heart with ()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빈칸 채우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이 시가 ABABCC의 규칙적 라임을 가진 시임을 먼저 소개하고 빈칸을 채우기를 진행한다. 영시의 가장 큰 특징이 각운의 존재이다. 영시의 규칙성이 나타나는 라임(rhyme)을 인지하면 학습자들은 영시를 들으면서 더 수월하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라임이란 시행의 마지막 단어의 음을 유사한 형태로 맞추는 것으로 이 시는 cloud와 crowd, hills와 daffodils, trees와 breeze로 나타난다. 다 채운 후,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일탈된 어휘가 시 속에 있으면 좀 더 문법에 적합한 언어로 제시하고, 은유나 상징, 이미지와 같은 비유법이 있으면 시 속에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영시는 길이가 짧지만 그 속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의 언어적 특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 예를 들어 all at once는 갑자기, as a cloud that floats에는 주격관계대명사가, fluttering and dancing 은 “떨럭거리며 춤추면서”의 분사구문 at a glances는 한 눈에, can't not but +V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진로 관련하여 영어 공인 성적표(토익, 토플, 텡스 등)가 필요하다. 이러한 욕구가 강한 학습자들을 위해 영시의 빈칸 채우기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서 언어적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영어 실력 향상 더 시간을 할애를 하면 효과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영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교수자의 일방적인 해석 중심이 아닌 다양하게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번역을 유도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시가 고어로 쓰인 것이라도 그것을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한국어로 번역을 진행한다.

난 외로이 헤맸었다
골짜기와 언덕 위로 떠다니는 구름처럼
갑자기 그 때 한 무리의 수많은
황금 수선화를 보았어요
호수 옆, 나무 아래에서
미풍에 펄럭이며 춤추면서
은하수에서 반짝이고 빛나는
별처럼 연속적으로
만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들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송이를 한 눈에 보았어요
활기차게 춤추며 머리를 치켜 들고
그 옆에는 호수 물결이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꽃들이
기쁨에 차 반짝이는 파도보다 더 춤추었습니다.
시인은 이 유쾌한 무리들과 함께
기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뚫어져 바라보고 또 바라 보았습니다-하지만
이 풍광이 나에게 어떤 풍성함을 가져다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울 때면 자주
공허하거나 생각에 잠긴 기분일 때,
내면의 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독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수선화와 춤을 춥니다.

(6) 한국어 시 쓰기

원작을 모티브로 삼아 학습자들은 자신의 시를 써본다. 이 때 학생들의 언어적 능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구문, 문장도 바꾸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워즈워스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원형을 어린 아이에게서 찾았기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가슴 뛰는 대상이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대상물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유도한 후 시 쓰기를 진행하면 좋다. 영시를 한글로 번역한 후, 번역한 형태를 그대로 두고 시 속의 명사, 동사, 형용사 일부를 바꾸거나 혹은 의미구를 바꾸거나 나아가 문장 전체를 바꾸어서 자신이 원하는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이다(Maley & Moulding 7-14). 초벌 번역에서는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다면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표현해보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깊이 있게 사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①한 단어 바꾸기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중심)

단순한 단어나 구를 바꾸는 패러디 시 쓰기 과정을 넘어서, 언어, 이미지, 표현, 구성이 어떻게 선택되고 배열되는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시 창작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시 창작을 기대하기보다 글쓰기를 통한 영어 및 한국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러디 시를 쓴 이후, 학습자 각자의 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학습자와 경험의 공유 시간을 가진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 타인의 창의성, 경험, 가치관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모둠 활동인 경우 서로 학습자들 간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 서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7) 시 쓰기 이후 발표하기

패러디 시를 쓴 이후, 학습자 각자의 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 타인의 창의성, 경험, 가치관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장르의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자아를 소멸시키면서 창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다. 이들의 창작 동기는 각각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수렴이 되는 예술가의 창작 동기는 개인적이든, 아님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향한 것이든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됨을 무수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초벌 번역처럼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다면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표현해보는 것이 가장 쉬운 패러디 시 쓰기 방법일 것이다. 자연스런 한국어로 표현하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깊이 있게 사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패러디 시를 쓴 이후, 학습자 각자의 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 타인의 창의성, 경험, 가치관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8) 시화, 사진, 캘리그래피를 이용하여 굿즈 만들기

영시 읽기와 한국어 패러디 시 쓰기를 마무리하면서 영시 원작이나 자신이 쓴 패러디 시 중에 마음 드는 시를 하나 선택하여 자신 만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 맘에 드는 영시 구절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는 등 영시 관련된 사진, 그림 등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깊은 느낌을 주는 그림, 아름다운 시구를 찾아 써보는 시간을 가진다.

패러디 시 쓰기는 영시를 한글로 번역한 후, 번역한 형태를 그대로 두고 시 속의 명사, 동사, 형용사 일부를 바꾸거나 혹은 의미구 더 나아가 문장 전체를 바꾸어서 자신이 원하는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이다(Maley & Moulding 7-14).

(학생들과 공유한 내용 정리)

학습자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할 주제로 가슴 뛰게 하는 것과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을 제시한 후에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글쓰기를 진행했다.

(1) 가슴 뛰게 하는 것

영어영문학과 21학번 꽃 시장에서 꽃을 한아름 사 올 때 설렌다. 집에 가져온 꽃으로 꽃다발 만드는 것도

영어영문학과 20학번 보랏빛 비 속에서 자우림의 노래를 듣는 밤

국어국문학과 21학번 콘서트에서 한사람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랑 총만한 느낌

동북아통상 전공 22학번 예전에는 불꽃 놀이, 무지개 등 등 다 아름다웠는데 요즘 잘 못 느낌

공연예술학과 20학번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 먹을 때

동북아국제통상학과 22학번 캄보디아 휴양지 까업에 가족여행 갔을 때 보았던 붉은 노을

역사교육학과 20학번 뮤지컬 보기

(2)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생각하는 것

공연예술학과 20학번 골프장에 나오는 불빛이 오로라 같아서

산업경영공학과 22학번 강릉 밤바다에서 평소에 보던 바다와는 달리 매우 위협적으로 나를 끌어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외국의 시계탑

패션산업학과 20학번 망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던 날 그날의 별 바람 온도 모든 것이 좋아서 그 공기를 움켜쥐고 싶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름다운 영시 읽기와 쓰기(Reading English Poems and Writing Korean Poems)'로, 학습자에게 훌륭한 문학 작품(영시)을 소개하고, 자아의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도우며, 번역된 시를 모티브로 하여 자신의 상상력과 경험과 가치관을 녹여내 자신을 위한 시를 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능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아가 인문학적 성찰을 목표로 하여 영시를 문학 작품(a work)으로서, 텍스트(a text)로서, 언어 자료 (a language material)로서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위치에서 가치 있고 수준에 맞는 시를 텍스트로서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실용적 영어교육과 함께 인문학적 접근에 부합되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들, 즉 사랑, 나의 가족, 삶의 역경에 대한 극복, 죽음의 극복, 자연의 치유, 자연과 인생, 카르페 디엠, 동식물 관련 시, 인간 소외, 및 인생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무게감 있는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영시 작품을 주제 중심(theme-based) 접근 방법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글쓰기를 진행한 학생들은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동시에 작품 감상이라는 수동적인 독자의 자세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작가로의 위치 전환이라는 흥미로운 활동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 연구는 교양교육으로서 영시 읽기와 감상 그리고 번역을 통해 인문학적으로 노출됨은 물론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펼쳐봄은 물론 타인의 세계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즉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성찰은 물론 타인의 창의성, 경험, 가치관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키우도록 돕고, 단순한 인성 교육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할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른 종교, 문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게끔 도움이 되는” 하버드대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떠오르게 하도록 구성하였다.

참고문헌

- 공성수. 『영시를 활용한 구성주의 영어교수법』, 2010.
- 김경한. 「시적 자료를 활용한 영어 리듬 교수학습 모형 개발」. 『영미문학교육』 14(2) (2010): 79-120.
- 남다운. 「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을 위한 영시 수업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시 제시」. 『영미문학교육』 10(1)1 (2006): 111-135.
- 손혜숙. 「대학 글쓰기에서의 패러디 글쓰기 교육방법 연구」. 『대학작문』 11(2015): 77-98
- 송무. 『시적 텍스트를 이용한 영어 교육』. 서울: 신아사, 1998.
- 어도선. 「영미시 교육과 영미시 활용: 정의적, 인문학적, 영어 교육적 관점을 통한 영미시 교육 방법론」. 『영미문학교육』 11(1) (2007): 67-105.
- 정끝별. 『패러디의 시학』 서울: 문학세계사, 1997
- Carter, Ronald & Richard Walker. "Literature and the Learner: An Introduction." *Literature and the Learner: Methodological Approaches*. Ed. Ronald Cater et al. Basingstoke: MacMillan, 1990. 1-9.
- Greenwood, Jean. *Class Readers*. Oxford: Oxford UP, 1997.
- Hansen, Grethe Hooper, "Learning by Heart: A Lozanov Perspective." Ed. Jane Arnold. *Affect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P, 1999. 211-225
- Maley, Alan. & Alan Duff, 1989, *The Inward Ear: poetry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P.
- Maley, Alan and Sandra Moulding. *Poem into Poem*.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McKay, Sandra. 1982.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4), 529-536.
- Lazar, Gillian.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Povey, J. F., *Literature in TESL Programs: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Y: Longman, 1972.
- Tomlinson, B., "Using Poetry with Mixed Ability Language Classes", *ELT Journal*, Vol. 40, 1986.
- Stevick, Earl W., *Memory, Meaning & Method: A View of Language Teaching*, Boston: Heinle & Heinle, 1996.
- Topping, D. M., "Linguistics or Literature: An Approach to Language", *TESOL Quarterly*, Vol. 2, 1968.
-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MA: MIT Press, 1986.
- Waugh, Patricia. 김상구 역 (1992), 열음사